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경기도포천교육청, 신규 및 전입교사 내고장 탐방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5월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008년도 신규 및 전입 교사 193명을 대상으로 내 고장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내고장 탐방 연수는 포천지역에 처음으로 부임한 신규 교사와 타시군 전입 교사들이 포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이해하여 자라나는 포천의 학생들에게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탐방은 옛 선현들의 고등교육기관인 포천향교, 사육신의 한 명인 유응부 장군의 유해가 있는 충목단, 조선조 16대 임금 인조의 삼남인 인평대군 묘, 속중 17년 남인제 학자, 유생들이 모여 이덕령과 조경(옹주)공의 위패를 모시고 추모했던 용연서원 4곳을 차례로 탐방하며 문화 유적과 관련한 해설



경기도포천교육청은 5월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2008년도 신규 및 전입 교사 193명을 대상으로 내 고장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중학교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는 포천향교를 둘러보며 포천중 S교사는 "정말 감회가 깊어요. 그 옛날 포천고등교육의 장이었던

포천향교를 직접 와서 보니, 포천교육의 역사를 한 눈에 보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반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을 많이 알리고 고장의 열도 심어주어

아졌어요"라고 말했다. 조선조 수양대군의 아육을 반대하며 단종 복위를 주창하다 숨진 유응부 장군의 율곡은 충성심과 기개가 서려있는 충목단을 오르면서 탐방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충목단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수에 참가한 S초교 S교사는 "포천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 지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현장 탐방 연수를 통해 많은 문화 유적이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뻐요. 학교에 돌아 가면 우리 반 어린이들에게 포천의 열과 포천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르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날 탐방 연수를 마치고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오정순 교육장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포천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오늘 이루어진 현장 체험 연수로 우리 고장 포천을 더 많이 알리고, 이해하고, 가르쳐 고장 선현들의 슬기를 본받아 먼 훗날 훌륭한 인재가 포천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공지영 작가의 즐거운 나의 집을 읽고



구애경 주부명예기자

아들하고 집 근처 홈플러스로 쇼핑을 갔다. 내가 사다주는 옷을 불평없이 입었는데 요즘은 자기 옷은 자기가 고르며 따라가면 우리 반 어린이들에게 포천의 열과 포천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르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날 탐방 연수를 마치고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오정순 교육장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포천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오늘 이루어진 현장 체험 연수로 우리 고장 포천을 더 많이 알리고, 이해하고, 가르쳐 고장 선현들의 슬기를 본받아 먼 훗날 훌륭한 인재가 포천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위령, 행복이란 건 말이다. 누가 물어서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건..... 죽을 때만이 진정한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살아온 모든 나날을 한 손에 쥐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지" "사람에게 상처 받은 것은 자연이 치유해준다"

이 소설은 공지영 작가의 가족사인데 주인공은 열아홉살 살된 작家的 의미를 묻는 내용인데 공지영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를 소설이라는 장르로(실제 사람들의 모델로 썼지만 허구에 의해 펼쳐짐) 써진 것인데, 워닝, 등반, 제재 각기 성이 다른 하지만 엄마는 같은(작가는 3번 이혼한) 형제들이지만 가족으로 묶여 있고 그들을 끈끈하게 묶는 것은 다른 아닌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책 내용 중에 내 가슴에 와 닿는 문장을 여기에 옮겨본다. "신다는 것은 견디는 거야"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지만 서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만 사랑으로 묶여있는 가족이기에 행복하다는 주인공 워닝.

요즘 가족관계가 좀 복잡해져서 그런 것 같다. 실랑 말도 생기고 (자기가 원하기도 하고 원치 않지만 상황 때문에 ...) 어떤 가족 관계는 궁극적으로 다 행복을 추구하기는 마찬가지가 아닌 듯 싶다. 나와 다르다해서 나는 옳고 그들의 말이 시집으로 시작된다. 어렸을때 아빠엄마가 이혼을 해서 아빠와 새엄마와 살다가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 딸이 있음) 새엄마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서 16년 만에 친엄마를 찾아 오게된다. 각각 성이 다른 형제를 혼자 키우는 작가 엄마한테로 와서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된다. 새로운 가족과 부딪치면서 비로서 다른 아들(아빠 새엄마)이해 하는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미웠던 새엄마와 아빠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주인공 워닝.... 어쩌면 너무나 복잡한 가족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그 무리에 있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한발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고 수긍이 되기도 한다.

자·유·기·고

수학여행



조은혜 학생명예기자단 부단장 문묘초 6년

세상에 태어나서 13년만에 처음 가보는 수학여행이란 어떤것일까? 경주와 강원도 볼종 한 곳을 선택해서 결정된곳이 강원도이다.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유적지와 역사가 숨쉬고 있는 곳' 경주를 체험하고 싶었지만 다수결에 의해 강원도로 선택되었다. 섭섭함과 아쉬움이 많았지만 강원도도 관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 떠나 2박3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일정표를 받아보고 출발 하루 전에는 이런 저런 생각에 들떠있었고, 출발당일에는 아침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모를 정도였다.

부모님의 이런저런 염려와 당부를 뒤로하고 관광버스가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무 근심 없이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다 오고 싶었다. 선생님께서 지시사항을 전달하시는데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조를 이루고 짝을 지어 자리를 배정 받고 출발하자마자 버스 안에서는 아사사 크런치 소리가 들리고 참새들의 수다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준비한 mp3를 켜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뺏다를 반복했다. 눈을 뜨기만 하면 꿀 포도송이 같은 아카시아 꽃이 싱그러움을 더해주고 꽃향기는 코를 벌름벌름 하게 만든다.

우리 엄마 초등시절에는 꽃을 따서 씹으면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제법이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꽃을 먹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차가 썩성 달다 보면 농부들의 모내기하는 분주한 모습도 눈에 띈다.

우리는 신나게 여행을 떠나는 데 농부들은 허리를 굽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자유함을 누리며 달리는 우리를 마음은 밖을 바라만 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랠다.

뒷속에서는 'baby~one more time~' 이 흐르고 있는데, 래프팅이 걱정이 되어서 탈까 말까 망설이다 인제에 도착했다. 엄마의 정성과 사랑인 감밥을 맛있게 먹고 소화가 되기도 전에 공포의 래프팅이 시작되었다.

우리보다 한참이나 뒤쳐진 팀들이 90여 경사진 곳에서 뒤집히고 고함을 지르며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지만 어차피 웃이 적서지고 순서에 의해 출발하자마자 으악 소리와 엄마소리가 지옥에서 왔다갔다하고 간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벌써 위험한 곳을 지나 통과한 우리팀은 빠지지 않고 뒤집히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다 통과하고 보니 주저앉아서 울 뻔했는데 한번 뒤집혀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숙소와 식당 배정도 짐만들은 편하지 못했어도 그런대로 만족했고, 일정에 맞추어 화암동굴에 도착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억년 대지연의 신비가 이토록 멋진 것일까?

금과 대지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발된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은 1922-1945년까지 금을 캐던 천포광산으로 금광굴진중 천연동굴이 발견됨으로 신비로운 재가 세상에 드러났고 석회 동굴의 특성을 보여주는 천연 동굴과 수많은 광부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금광의 흔적들을 그대로 만날 수 있었고, 현재 개방된 천연동굴은 2800m2 규모의 광장에 360m의 탐방로가 설치되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해주었다.

동양 최대의 유적폭포와 대형석순, 석주들이 자리하고있는 천연동굴에는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종유석들이 지금도 자라고 있어 신비감을 더해준다. 한국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생겼다.

이런 아름다운 화암동굴에 잠깐 둘러 탄산수가 풍부하고 칼슘과 불소의 9가지 건강 필수소가 함유되어 프로톤 프로톤 약수가 솟는 소리의 불소는 약수를 부무니 선물로 드리려고 한뼉 담아 보았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 대대로 잘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짧은 시간의 일정이었기에 더 많은 것을 볼수가 없지만 그래도 바닷가 모래밭은 찾을 수 있어 좋았다.

거닐기도 하고 거대한 파도와 마주치고 기록기록 갈매기와 인사와 통통통통 고기배가 지나 칠때도 모두들 조잘조잘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환상적이고 날아갈 것만 같아 비다속으로 풍덩 뛰어든것은 생각도 들었다.

2박 3일의 정겨움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모두가 지쳐서 코를 고는 소리와 함께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도 보였다.

인술하신 선생님과 기사님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는데.....

정신을 애산리에 아라리촌이 눈앞을 지루 스쳐지나갔다. 전통가옥과 굴피집, 너저집~ 물레방아 등등이 고전소설의 안방전을 떠오르게 하고 구경진 정선 아리랑이 컸지만 맘도 나도 슬며시 눈을 감고 꿈을 청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애없는 구경진 가락이 들려오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多文化가정 취업박람회 · 축제 신청접수

6월24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가능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포천시 소흘읍사무소,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포천지부협의회가 주관하며 여성부와 포천시가 후원해 마련하는 경기북부 다문화가정 취업박람회 & 축제가 오는 6월28일 오전9시30분부터 동남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취업박람회 및 축제는 취업상담부스 30개, 고충상담부스 5개를 설치하고 제1부 열리는 장, 제2부 취업의 장, 제3부 도전의 장, 제4부 체험의 장, 제5부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된다.

제1부 열리는 장에서는 개회선언과 인사 및 축사, 제2부 취업의 장은 취업상담 및 알선, 정보제공, 취업신청 등 부스를 운영하고 도전의 장은 가요열창과 문화도전 골든벨 행사를 진행하며 체험의 장은 문화체험과 음식체험의 장으로 마련하고 화합의 장은 축하공

연과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으로 마련된다.

부대행사로써는 출입국 민원 고충상담과 다문화가정지원정책 안내, 아름다운 나눔터 등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채용을 위한 기본부스를 제공하고 구직자 현장면접 등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책자에 기업현황을 수록해 기업을 홍보하고 행사 후에도 인재알선 등의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 신청 및 문의는▶취업박람회&박람회:☎(031-828-9302-3, FAX 031-828-9461)▶주소 (480-848) 의정부시 신흥로 172번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4층)▶e-mail: dongrok@moj.go.kr, jungmeel@yahoo.co.kr▶축제(도전&화합의 장):☎031-538-2602, FAX 031-538-2882)로 하면 된다. 한편, 신청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가능하며 6월 24일까지 접수 및 신청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8 경기북부 다문화가정 취업박람회 & 다문화 축제
(열리는 장/ 취업의 장/ 도전의 장/ 화합의 장/ 체험의 장)

일시 2008. 6. 28(토) 09:30
장소 포천시 소흘읍 동남중·고등학교 (운동장 & 체육관)

주최 (사)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주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 포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포천시 소흘읍사무소, 대한적십자사포천지부협의회

문의처
다문화 축제 031-544-0611
031-538-2602

경기북부 다문화가정 취업박람회 & 축제가 오는 6월28일 오전9시30분부터 동남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청소년 골목길 홍보 캠페인 운영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는 5월31일 센터를 활성화하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와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제1회 명성축제 '청소년 골목길 홍보(있다?! 없다?!)' 캠페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후 리서치판과 기념품을 가지고 골목길을 다니며 시민들에게 직접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정보에 대해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날 청소년들이 만난 시민은 약 2,000명에 이르며 홍보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많은 분들이 청

소년 교육문화센터에 큰 관심을 보여줬다"면서 "이를 계기로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실시되는 유익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포천시에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

포천시 가족여성성과 장미환 과장은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과 시민을 위해 명성축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거리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스카우트 학생들이 5월30일 포천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을 찾아 1박2일 산촌체험을 실시했다.

심석초교 스카우트 학생들 산촌체험

포천시 지동산촌마을에서 1박2일간 체험활동

경기도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스카우트 학생들이 5월30일 포천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을 찾아 1박2일 산촌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산촌체험활동에 나선 심석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천년수 견학을 시작으로 나무공예 체험과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등의 숲 체험, 배추, 옥수수 관찰하기, 망태떡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했다.

지동산촌마을에서 심석초등학교 스카우트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잣 불꽃놀이 체험행사의 흥을 돋우었으며 마을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가득 안고 하루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새로 마련한 지동산촌 펜션에서 즐거운 하룻밤을 보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동산촌

마을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무척 좋았고 지동산촌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인정에 감사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북면 지동산촌마을에서는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동산촌마을의 자랑인 천년수 견학 및 피톤치드가 뛰어난 잣나무숲 산책하기, 나무공예, 잣집 꿀에, 떡매치기, 지동산촌만능놀이 수놓을 잣꽃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지동산촌마을 체험관광은 연중 실시하며 20명 이상 단체에 한해 참여 가능하고 예약접수는 해당마을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및 전화 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 (http://jldong.invil.org/이관영 011-9786-9018)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쌈지(임시) 공영주차장 6월9일 開放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 주차난 해소 기대

포천시는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쌈지(임시) 공영주차장을 9일부터 개방한다.

쌈지(임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천시 신음동 162-17번지 일원에 임시공영주차장(부지면적 2,500㎡, 주차대수 76대)을 설치 완료하고 9일부터 개방할 계획으로 주차장이 개방되면 시민들

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됨은 물론 주변지역의 주차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흘읍 중앙로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송우리 155-17번지 일원에도 동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협약을 체결 완료하고 6월중 설계를 완료해 7월중에는 주차장사업을 완료 개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청성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완료

유아용 변기 등 시민편의 위한 편의시설 설치



포천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지난날 29일 완료했다.

포천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공중화

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지난날 29일 완료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 공사비 120,990천원을 투입해 2007년 12월 12일부터 지난날 29일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시는 시민의 공익 이용을 고려해 당초 건축면적 34.56㎡에서 60.7㎡로 증축하고 남자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등을 추가 설치

함으로써 화장실 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화장실 외관은 공원 경관과 어울리는 원목과 기와를 이용해 한국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렸다. 내부에는 여성을 위한 화장대, 기저기 교환대 및 유아용 변기 등을 설치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 및 화장실 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화장실은 모두 수유 및 기저기 교환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쾌적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연차적으로 노후된 시설물 정비 및 보도블록 교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4@paran.com